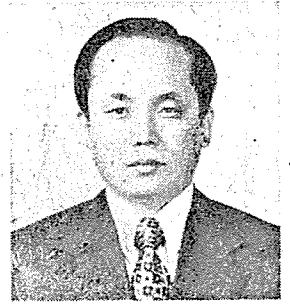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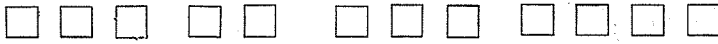


協會誌 100號發刊에 즈음하여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77年 9月號로서 우리의 大韓齒科醫師協會誌가 100號를 내게된것을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며 祝賀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대 本協會誌가 月刊으로 世上에 빛을 보게되었고, 無數한 어려움과 試鍊을 克服하고 오늘에 이른것은 再言할 必要도 없이 우리 3,000大齒會員 여러분들의 絶對的인 聲援과 歷代 會長님, 學術委員長님, 任員陣, 執筆해주신분들과 編輯을 맡아주신 분들의 勞苦의 結果라고 생각하며 이 誌面을 빌어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草創期부터 우리의 協會誌는 齒醫學 發展과 會員相互間的 親睦을 最大目標로 삼고 分科學會誌도 別로 發刊되는것이 없었던 그 時節에 學術誌로서의 一翼을 담당해왔고, 原著, 綜說等 훌륭한 論文을 爲始하여 臨床實技와 技法, 새로운 齒科材料의 紹介및 使用法을 爲始해서 會員의 消息, 알리고 싶은일等 媒體로서의 使命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100號를 맞이하기 까지에는 허다한 迂餘曲折과 未洽한點이 많았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마는 우리 協會를 爲하는 여러분들의 熱意와 執行部의 私心없는 犧牲精神이 오늘을 있게한 큰 理由中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부신 經濟成長을 이룩했고, 社會各分野도 先進國際列에 어깨를 나란히 할날도 멀지않은 이 時點에서 우리 齒科界도 落後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오히려 先導的인 役割을 담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100號發刊을 맞이하여 이를 발판삼아 跳躍과 發展의 契機로 더욱 알찬 編輯內容과 誠意로써 協會誌育成에 全力을 傾注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協會誌는 바로 여러분 自身들의 雜誌임을 다시 한번 認識해주셔서, 더욱 徹적질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聖業에 無窮한 發展과 宅內에 祝福이 깃들기 빌며 協會誌 100號를 記念하여 人事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大韓齒科醫師協會 委員長 金圭植
大齒學術委員會